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6호 [루체 제23198호] 주제99 (2010)년 9월 3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자강도, 량강도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자강도, 량강도대표회가 8월 28일에 진행되었다. 대표회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필승의 신심과 탄원에 넘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노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소집되었다. 대표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대표회장들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었다. 대표회장들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회들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노력적성으로 맞이하자!》 등의 구호들이 대표회장들에 나붙어 있었다. 대표회들에는 도, 시, 군당과 각급 단위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었다. 대표회들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자강도대표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자강도당위원회 기관장조직대표인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김준성동지가 하였다. 그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열리는 조선로동당대표회에서는 당의 강화발전과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의

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추대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도인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고결한 충정의 분출이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시대적요구의 반영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승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김일성민족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강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불멸의 령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끊임없이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방항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만경대가문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도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적지들이 더욱 훌륭히 꾸러져 혁명전통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성속에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CNC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최첨단을 돌파하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수 있었고 중소형발전소들이 수백개 건설되어 전기걱정을 모르게 되었으며 도처에 현대적인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 영소목장, 식료공장이 일떠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령도밑에 도전자업무연구소와 도시판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러지고 3월5일청년광산마을과 량명군 꽃동산마을을 비롯하여 자강방 어디에나 선경마을이 일떠서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은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이며 이라고 하면서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자강도당위원회 기관장조직대표인 박성남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자강도인민위원회 당조직대표인 최기봉 자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희천시 당조직대표인 전용웅 희천공업대학 학장, 도청년동맹 당조직대표인 리명현 자강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라고 하면서 자강도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변을 안아올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이념의 뜻에서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라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그들은 전당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조직성과 전적으로 강한 당으로 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자강대국건설대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간다고 말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를 때 우리 당이 강해지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빛나며 인민의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진다는 철리를 생활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와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결사관철하여 강계정신이 창조된 자강방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력원으로 꾸러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량강도대표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량강도인민위원회 당조직대표인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희택동지가 하였다. 그는 이번 대표회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김일성민족사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일찌기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주시, 군사중시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만방에 높이 떨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지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초인간적인 의지, 빨찌산식 강행군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하시며 애국헌신의 영웅사시사를 수놓아 오시었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량강도를 혁명적 풍요양의 전당으로, 보다 살기 좋은 인민의 력원으로 전면시일 현대한 구상을 다 안으시고 불변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더욱 훌륭히 꾸러지고 수력발전소들과 현 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이 새로 일떠섰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되어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었다. 대흥단군이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되고 그 경협이 일반화되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도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렸으며 삼지연읍과 대흥단읍, 무봉마을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지역과 농촌마을, 단위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면모를 일신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정숙사범대학 이후대교육의 믿음직한 원동장으로 꾸러지고 감자연구소, 도예술공장, 삼지연연구문화회관, 삼지연학생소년궁전과 함께 백두산지구에는 체육촌이 새로 건설되어 운영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도의 과학, 교육, 문화발전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그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백암군을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감자생산기지로 전환시키며 도안의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에서 기술개건과 생산을 다그쳐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이 평평 쏟아지게 하여 조선로동당대표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노력적성으로 맞이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

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량강도당위원회 기관장조직대표인 김재영 량강도당위원회 비서, 량강도인민위원회 당조직대표인 김철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예산시 당조직대표인 유영화 예산신발공장 지대인, 량강도청년동맹 당조직대표인 장명호 량강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예산농림대학 당조직대표인 리수경 예산농림대학 농림연구소 연구사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면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 조국은 강성대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된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철적결심은 각오와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도의 투쟁에 맞게 혁명사적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감자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평양, 립민부문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결의를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표회장들에서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져올렸다.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자강도, 량강도대표회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7뒤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우리 당의 령도따라 이 땅에서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메히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모델로스지부에서 8월 6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프랑스판전선소속 데모프라트 출판사에서 8월 24일 단행

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메히코로동당출판사에서 8월 20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역사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즈음하여 메히코로동당출판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출판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식료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평양곡산공장 종업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곡산공장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이 1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박명중 평양시인민위원회 1부위원장, 장인수 평양시 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문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곡산공장 초급당비서 김만손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박형렬, 직장장 김준모, 로동자 한학용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열마진 훌륭히 기술개건된 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이 지난 시기에 비해 당과류생산을 무려 3배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었으며 그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된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이 자랑한 현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갈 때 빠른 시일안에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오늘 공장이 기술개건사업을 단 몇개월사이에 성파적으로 끝내고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당과류를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모든 성과를 공

중업원들과 기술개건사업에 동원된 성원들에게 돌려주시고 감사를 주시었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나라의 식료품발전과 공장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기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하면서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최첨단을 돌파하겠다는 배심을 가지고 효소생산공장, 효소물엿, 포도당생산공장, 밀제식당명이농마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 당과류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식료품의 질을 높이고 원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자강도당대표회가 진행되었다. 특과기사 공로혁 적음

김철소식 8월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수행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양에서 뚜렷이 내달리고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1, 2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수명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는 한편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조경평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해란직장, 내화물직장, 판방보수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교대간 편제를 긴밀히 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생산정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장무에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 풀어나

가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혁신의 불길은 보장단위들에서부터 세차게 타올랐다. 소결 1, 2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수명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는 한편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조경평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해란직장, 내화물직장, 판방보수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교대간 편제를 긴밀히 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생산정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보장단위들에서 떠오른 혁신의 불길은 그대로 철강제증산

의 거세찬 불길로 이어졌다. 용광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설비를 늘이 발휘하여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다. 강철 2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이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공장간 편제를 강화하고 설비의 가동률을 높였다. 8월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련합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으로 당대표자회를 맞이할 충천한 기세로 총돌격전을 더욱 파격히 벌려나갔다. 김철성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주공전선을 지켜선 공지높이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으로 힘찬 전군을 다그치고있는 각지 현지지도단위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가을걷이준비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빈틈없는 작전, 전투적인 일본새

현지지도단위 농장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걷이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우실 농장들을 비롯한 현지지도단위 농장들이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하여 가을걷이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각지 현지지도단위 농장일군들은 한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면서 가을걷이준비가 자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버, 강병이 가을과 탈곡을 최적기에 요약할 수 있게 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조직적 차입을 짜고들고있다.

영광의 땅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뜻깊은 올해도 농장을 찾았으니 전국 본보기농장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가도록 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에 높은 알곡생산성으로 보답할 심정의 맹세를 다진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새해의 탈곡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농장일군들은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농장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을 통하여 기계화작업반원들은 부단히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물려나가면서 트랙터와

과별적, 벼수확기들의 수리정비를 끝내고 시운전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일군들의 힘에 의하여 가을걷이준비는 빈틈없이 진행되고있다.

합주군 동봉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장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동해안농사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을걷이준비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팔낼수 있는 방도를 탈곡기들의 농활을 높이는데서 찾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새해의 탈곡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지난 시기 제1작업반에서 창조한 경험을 일반화하여 농활높은 새해의 탈곡기를 작업반들에서 자체로 만들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워나가고있다.

모든 작업반에서 당대표자회원들이 농활높은 새해의 탈곡기들을 기어이 만들어낼 목표를 내세우고 기술자들과 초급일군들, 농장원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제명군 삼지강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벼가을을 제때에 집적으로 하기 위한 단위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일정계획을 바로 세우고 작업반과 분조들에서 그것을 이끌어갈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기계화작업반원들과 수리분조원들은 소농기구생산에 집중적으로 하고있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

기구들을 당장이라도 쓸수 있게 준비해놓고있다.

태천군 은흥, 통천군 신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가을걷이준비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애써 지어놓은 낱알을 제때에 빨리 거두어들이는데 알곡수수의 커다란 예비기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이 만가동할수 있게 조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농경어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을걷이준비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남달릴기를 제때에 와딱다

기술혁신으로 자랑말으라 일려

우리와 만간 작업소기사항 김용철동무의 말이다. 우리는 기술혁신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는 혁신적정도를 만나보고싶어 그와 함께 현장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작업장에서는 소재생산이 한창이었다. 한쪽에서는 쇠를 붓고 다른쪽

수하고 증순농기구도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농장에서는 농기계수리에도 힘을 넣었다.

기계화작업반장 윤순현동무와 선반공 백정철동무는 군농기계작업소에 가야만 할수 있다면 부족함을 제함으로 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며 애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농활높은 가공기구를 만들어 트랙터수리기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작업반원들은 많이 쓰이는 여러 종류의 나사를 미리 가공하는 한편 트랙터들의 가공상태를 알아보고 수리정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수리분조에서도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소농기구를 버리고 전동기와 변압기수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원들의 일본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혁신적인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의하여 가을걷이준비가 빈틈없이 계속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서순호

응진군 농기계작업소를 찾아서

에서는 소재가 생산되는속도 운반하고있었는데 그물모두의 비 갈마다에는 혁신적인 궁지가 비껴있었다.

《모든 부분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적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디다.》

얼마전 우리는 응진군 농기계작업소를 찾아갔다. 작업소에 들어서니 구내중심도로 시원하게 뻗은 도로며 갈나무, 살구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과 규모있게 배치된 생산건물들이 눈앞에 우러서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농기제수리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작업소의 틀룩한 모습이었다.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결과 생산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만간 작업소기사항 김용철동무의 말이다. 우리는 기술혁신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는 혁신적정도를 만나보고싶어 그와 함께 현장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작업장에서는 소재생산이 한창이었다. 한쪽에서는 쇠를 붓고 다른쪽

수하고 증순농기구도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농장에서는 농기계수리에도 힘을 넣었다.

기계화작업반장 윤순현동무와 선반공 백정철동무는 군농기계작업소에 가야만 할수 있다면 부족함을 제함으로 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며 애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농활높은 가공기구를 만들어 트랙터수리기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작업반원들은 많이 쓰이는 여러 종류의 나사를 미리 가공하는 한편 트랙터들의 가공상태를 알아보고 수리정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수리분조에서도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소농기구를 버리고 전동기와 변압기수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원들의 일본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혁신적인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의하여 가을걷이준비가 빈틈없이 계속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서순호

기술혁신으로 자랑말으라 일려

우리와 만간 작업소기사항 김용철동무의 말이다. 우리는 기술혁신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는 혁신적정도를 만나보고싶어 그와 함께 현장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작업장에서는 소재생산이 한창이었다. 한쪽에서는 쇠를 붓고 다른쪽

수하고 증순농기구도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농장에서는 농기계수리에도 힘을 넣었다.

기계화작업반장 윤순현동무와 선반공 백정철동무는 군농기계작업소에 가야만 할수 있다면 부족함을 제함으로 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며 애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농활높은 가공기구를 만들어 트랙터수리기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작업반원들은 많이 쓰이는 여러 종류의 나사를 미리 가공하는 한편 트랙터들의 가공상태를 알아보고 수리정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수리분조에서도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소농기구를 버리고 전동기와 변압기수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원들의 일본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혁신적인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의하여 가을걷이준비가 빈틈없이 계속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응진군 농기계작업소를 찾아서

에서는 소재가 생산되는속도 운반하고있었는데 그물모두의 비 갈마다에는 혁신적인 궁지가 비껴있었다.

《모든 부분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적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디다.》

얼마전 우리는 응진군 농기계작업소를 찾아갔다. 작업소에 들어서니 구내중심도로 시원하게 뻗은 도로며 갈나무, 살구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과 규모있게 배치된 생산건물들이 눈앞에 우러서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농기제수리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작업소의 틀룩한 모습이었다.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결과 생산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만간 작업소기사항 김용철동무의 말이다. 우리는 기술혁신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는 혁신적정도를 만나보고싶어 그와 함께 현장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작업장에서는 소재생산이 한창이었다. 한쪽에서는 쇠를 붓고 다른쪽

수하고 증순농기구도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농장에서는 농기계수리에도 힘을 넣었다.

기계화작업반장 윤순현동무와 선반공 백정철동무는 군농기계작업소에 가야만 할수 있다면 부족함을 제함으로 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며 애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농활높은 가공기구를 만들어 트랙터수리기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작업반원들은 많이 쓰이는 여러 종류의 나사를 미리 가공하는 한편 트랙터들의 가공상태를 알아보고 수리정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수리분조에서도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소농기구를 버리고 전동기와 변압기수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원들의 일본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혁신적인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의하여 가을걷이준비가 빈틈없이 계속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응진군 농기계작업소를 찾아서

에서는 소재가 생산되는속도 운반하고있었는데 그물모두의 비 갈마다에는 혁신적인 궁지가 비껴있었다.

《모든 부분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적적기술혁신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디다.》

얼마전 우리는 응진군 농기계작업소를 찾아갔다. 작업소에 들어서니 구내중심도로 시원하게 뻗은 도로며 갈나무, 살구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과 규모있게 배치된 생산건물들이 눈앞에 우러서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농기제수리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작업소의 틀룩한 모습이었다.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결과 생산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만간 작업소기사항 김용철동무의 말이다. 우리는 기술혁신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는 혁신적정도를 만나보고싶어 그와 함께 현장으로 향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작업장에서는 소재생산이 한창이었다. 한쪽에서는 쇠를 붓고 다른쪽

수하고 증순농기구도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농장에서는 농기계수리에도 힘을 넣었다.

기계화작업반장 윤순현동무와 선반공 백정철동무는 군농기계작업소에 가야만 할수 있다면 부족함을 제함으로 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며 애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농활높은 가공기구를 만들어 트랙터수리기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작업반원들은 많이 쓰이는 여러 종류의 나사를 미리 가공하는 한편 트랙터들의 가공상태를 알아보고 수리정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수리분조에서도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소농기구를 버리고 전동기와 변압기수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원들의 일본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혁신적인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의하여 가을걷이준비가 빈틈없이 계속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본사기자 서순호

고원군 송천협동농장에서

혁신적인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붙고있는 고원군 송천협동농장에 가면 당장이라도 낱알을 털수 있게 알뜰히 정비된 탈곡기들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농기제들과 증순농기구들을 알뜰히 다루고 제때에 수리정비하여야 합니다.》

가을걷이준비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제1작업반에 들렀던 판리위원장 탈곡기수리에서 무엇을가 로의하는 작업반초급일군들을 보고 그러 다가가었다. 그들은 탈곡기수리에서 제일 어려운 축 가공공제를 놓고 논의하는중이었다. 사실 지난 시기에는 음에 가서야 탈곡기축을 가공해야 하던 것이다.

얼마후 기계화작업반에 내려간 그는 작업반원들에게 축 가공공제를 탈곡기수리에 지장할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저체의 힘과 기술로 축 가공공제를 해결하자. 그래야 우리 모두 10월의 대추진장에 떼없이 들어설수 있다.

작업반장을 비롯한 기계화작업반원들이 적극 호응해나갔다.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원산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1일에

친일매국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

일본의 《한일합병조약》 조약공포 100년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대일 분노는 더욱 무겁게 폭발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해아릴수 없이 막대한 고통과 불행, 재산을 강요한 일제의 천인공도할 죄악을 기어이 결산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백배해지고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는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이었었다. 남창조적 《조약》들을 꾸며내여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840만여명이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침략전쟁과 고역장에 강제로 끌어들여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일본군의 성능으로 만든 일제의 죄악은 천추에 용납할수 없다.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것은 일본당국의 최후까지 없는 법적, 도덕적 의무이고 책임이다. 일본당국자들이 애국적인 사교력이 있다보니 우리에게 우리 민족앞에 최후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만부패하게도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외무남조하면서 죄악의 역사를 재현시키려고 날뛰고있다. 그들은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위한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일본군인안부들을 《도로 팔린 여자》로 모독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등으로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기에 바쁘다. 한편 독도 강령을 발표하고 대동아공영권과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으며 조선반도 《유사시》를 작성한 《유사시대》의 군사연습을 판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런 과격치한 책동은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의 경각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과거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것은 그것을 재현하려는 흉계의 발로이다. 침략과 약탈, 학살과 학대로 엮여진 일제의 피비린 과거사를 한사대 부풀리고 군국주의부활의 칼을 버리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역사와 정의에 도전하며 인륜과 도의를 탄압하게 유린하는 특등범죄행위이다.

문제는 우리 민족안에 군국주의일본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을 비호하고 조장시키는 극악한 친일사대매국노리우가 존재한다는데 있다.

한남조선보수세대의 친일사대매국행위는 전례없이 악랄하다. 리명박이 도는 얼마전 그 무는 《8.15 경축사》라는데서 남조선일본관계는 《아름다운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실천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나리우 하면 또 다시 일본에 발라맞추고 추파를 던지는 추대를 부러진다. 그것은 일제의 죄악을 불분명하고 일본과의 정치적격차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설교하는 친일사대매국당이다. 일제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치며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이상의 우롱, 모독을 안고 있다. 외세의존과 사대매국을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친일역적의 추악한정체는 다시금 날뛰고 있다.

리명박이 집권한지는 2년반밖에 안되지만 이 기간에 그들은 선행통치배들이 집권전기에 강행한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친일사대매국행위를 저질렀다.

피괴배당이 일본반동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팔아먹고있는것은 가슴저울에 역적행위이다.

집권하기 바쁘게 일본을 행각하여 왜왕을 《친왕》이라고 부르며 남조선에 초청한 쓸개배진 역적이 리명박이 그와 일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치명

하고 눈감아주면서 《북핵폐기》나, 《추가제재》나 하며 저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구걸해나선것은 일본상권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 범죄적기도의 집적발로이다. 우리 민족의 백년독립적인 일본반동들과 공모결탁하는 리명박이 사대매국군정성과 반공화국대결관념이 갈수록 떨어지는 친화적도 없는 특등친일역적들이다. 일본의 우익인물들이 리명박역도를 《보고 드문 친일과적점자》라고 부르며 동족을 돕고 그의 친일사대매국행위에 배패를 올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다.

군국주의일본과 한적이 되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동족살상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제정의 다리를 놓아주는 리명박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존재, 민족안에 더이상 살려두지 않는 현대판 《을사조약》의 무리들이다.

피괴배당의 친일사대매국행위로 하여 일본반동들의 역사외교행위와 독도 강령 등 제정책동이 강화되고있으며 반공화국대결경기가 극도로 달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민족안에 리명박정부가 같은 친일사대매국노정당을 두고서는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지킬수 없고 친일사대매국의 과거도 청산할수 없으며 일본군국주의의 체질의 마수도 꺾어버릴수 없다.

결론은 명백하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친일사대매국노들을 하루빨리 정권에서 내쫓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반외세, 반리명박투쟁의 기치높고 외세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리고 매국노들을 부역사의 무덤속에 매장하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싸워나아가 할것이다.

민족교육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오사카등포집회 진행

우리 민족교육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오사카등포집회 8월 26일 오사카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오사카시 구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오사카시 구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오사카시 구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의 민족교육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오사카등포집회 8월 26일 오사카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오사카시 구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오사카시 구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오사카시 구민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공동선언 발표

남조선과 일본의 140여개 시민단체를 구성한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현위원회》가 8월 26일 서울에서 《식민주의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남창조적 《한일합병조약》은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

부당한 폭압책동에 항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상열목사와 함께 6.15 공동선언실천에 박차를 가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민족주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민족주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민족주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일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미제와 남조선전광팔 연합대상수합훈련실시

8월 31일 남조선의 《CBS》 방송에 의하면 피괴배정부는 5일부터 9일까지 조선서해에서 미국과 연합대상수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제와 남조선전광팔 연합대상수합훈련실시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규탄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현위원회》의 주체로 8월 28일 서울에서 《강제병합 100년 국제학살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 남조선의 성공회 대학교 교수 김동훈 등이 발언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규탄

일본의 죄악을 비호하는 영국단체 일본인 반공화국책동을 단죄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남조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우리 나라 외부청 대변인 담화를 지지하여 8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죄악을 비호하는 영국단체 일본인 반공화국책동을 단죄

피괴배당이 반공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정보화시대의 문명을 향유할 남조선인민들의 조부적인 권리를 무시조각한 짓들이 미신적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얼마전 통일부패거리들은 우리 공화국을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들에 대한 주민들의 접속을 차단할것을 지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트위터》사이트인 《우리 민족》에 그 무는 불법정보라는 딱지를 붙여 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남조선내의 인터넷사용자들에게 그것을 내리먹이였다. 피괴배들은 인터넷 동영상상사제적인 《유튜브》사이트에 오른 우리들의 동영상접속률에 대한 주민들의 접속차단에 대해서도 《보안법규정》이다. 《남북교류협력지침》이니 뭐니 하고 피괴배들 두루그를 차단시키겠다고 미친것들을 본듯 설치하고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사이트들에 《북을 찬양》하고 《북의 체제를 합리화》 하는 등 《보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오르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어 파쇼당국은 거기에 오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경우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살기면 이발을 드러내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갈수록 체제대결야망으로 미쳐버린

은 거베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단죄된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미제와 남조선피호전광팔은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침략전쟁의 불질을 터뜨리기 위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며 정세를 더욱더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터넷에까지 이어진 조선에 대한 리명박 《정권》의 대결정책》이라고 폭로하였다. 동족에 대한 쿠도의 불신과 적대감을 저들이 인터넷에서 불분명한 체제대결의 마당으로 전락시키는 피괴배당의 반공화국대결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지체되고 조국통일운동에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피괴배들의 인터넷접속 차단소동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초하의 용납 못할 동족대결소동이다. 리명박정부가 대략적인 반공화국대결책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인터넷 접속차단에 매달리는것은 남조선 각계에 날로 높아지는 번 폭등일기운에 예민한 당황당해하고있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극악한 파쇼정, 인권교살자로서의 역적배당의 정체는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보수세대에 《보안법》에 의거하여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으며 반공대결에 미쳐날뛰고있지만 그것은 파멸의 운명에 처한자들의 말기증상일뿐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남조선 보수당국이 지금 《개헌》문제와 함께 4대강사업에 《최대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그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리명박정부는 《국회발족률증진》 이후 4대강사업이 《교반》이냐고 이리저리 재고하지만 민심이 악랄하게 도전해나선것이다.

지난 8월 24일 리명박역도는 그 무는 강행권이라는 4대강사업은 강을 개설하는 사업이니라 강의 《생태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떠들면서 만민민익인 공사물음을 적극 비호해나왔다. 이보다 앞서 《한나라당》에게리우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야당과 일부 도지사들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나이》는, 《지역주민들의 뜻》은 이것이다. 단적인 선례로 《4대강살리기예산》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이 포함여있지 않았으며 콘크리트배방지도를 보여주었다.

일리친들과 같이 얼마전 남조선에서 개각을 일으켰다. 그런데 리명박은 다른 장관들에게는 어떤 것도 4대강사업을 맡아 추진해온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류임시켰다. 더구나 스쳐지날수 없었던 한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우건설당첨》 상임고문 노릇을 하여 《대우이사명판》으로 불리우고 지금은 《4대강전도사》로 손가락질을 받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리세우가 투입판으로 임명되었다. 그 특임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리지

않았지만 리명박이 자신의 측근인 리세우를 통해 내세워 4대강사업을 독단적으로 내밀려 한다는것은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MBC》 방송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장관들이 개각에서 자리를 지키고 리세우가 투입판으로 임명된것이 《리세우가 많은 4대강사업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라고 평하였다. 한마디로 리명박역도의 이런 개각술은 4대강사업을 기어코 강행 추진하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보수세대의 4대강사업의 목적은 수질개선을 위해 반대민심에 맞서 울기론을 들고나오는것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단적인 선례로 《4대강살리기예산》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이 포함여있지 않았으며 콘크리트배방지도를 보여주었다.

리명박역도는 이면에는 4대강사업에 큰 비전을 품고있었다. 그들이 4대강사업은 《몇년이 지나면 물고기를 볼수 있는 사업》이라고 적극 광고하는것도 그것을 말해 주고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제정된 의 발표으로 삼으려는 보수세대의 기도는 실로 어리석은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보수당국이 우격다짐으로 내미는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이 뜨겁게 불타고있다. 세계는 북의 선군정치를 두고 《한민족만이 아닌 행성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반복의 정치》로 찬양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려면 선군정치를 절대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이것은 선군정치의 덕을 아는 우리 이남민중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우리 민족 살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남북이 힘합쳐 옹호하자》라는 글과 함께 실어 주목을 끌었다. 그밖에 많은 인터넷가입자들이 선군정치를 민족의 자주와 통일, 평화번영의 기치로, 애국애족의 보검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전하한 남조선의 한 신문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민족속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더욱 깊어지고 선군정치를 열렬히 지지하고있는 민족정호음이 일어나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라고 평하였다.

다른 한 인터넷트레드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운동세력들은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보며 앞에서 약속민족의 골짜기를 벗어던지고 강대국의 강권과 횡포를 100% 자력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북동포들의 자주적기상을 지켜보며 우리 민족



역적배당의 친미사대매국에 항의하는 대학생들 투양

권력적권력권력권력

를 강요하고 수많은 자원과 재물을 로략한것을 비롯하여 일제가 조선에서 강행한 범죄는 헤아릴수가 없다. 일본이 늦게나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과하고 배상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또한 일본은 합법적인 직권 흥룡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제와 독도강령시도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반공화국책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본사기자 김향미】

4대강사업의 빈번한탄압을 특별히 짚어보았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얼마전 《4대강사업총력지침을 위한 협의》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4대강사업 중지를 위한 항의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단행은 4대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특별위원회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였으며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10만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항의집회를 열것을 다짐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문화예술인 1800여명도 4대강사업중지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참조친구당》, 진보당 등 야당들은 얼마전 대외통화열고 김종의 대다수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즉각 철회하고 《국회》검증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속내 민주노동당 대표 등 4명의 지도부와 소속원들은 4대강사업중지를 요구하며 투쟁이후 통성투쟁에 돌입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보수세대의 기만정치에 속아넘어가지 않고있으며 4대강사업을 기어이 저지시킬 의지에 넘쳐 있다. 남조선 각계는 갈수록 체제대결야망으로 미쳐버린

선군정치는 조선의 자주권수호를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

우리 나라 대사관 축하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을 축하하여 행정부장은 한을 단장으로 하는 만마면맹연대성발원대표단이 8월 24일과 25일 해당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또한 만마 양근시 시장 겸 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상경, 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상경, 방글라데시주무장 도에 이상, 방글라데시주무장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제 칸 등은, 인민혁명 위원

장 가브리엘 나츠, 로씨야 원동선군정치 및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등 각국 대표와 부위원장 아스타호브를 비롯한 협회성원들이 8월 24일과 25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절세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조선은 강력한 핵억제력까지 마련하였다.

조선에서는 군대가 조국보위뿐 아니라 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무문들을 맡아 돌고꾸를 맡아예끼고있다.

경축 집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 경축집회가 방글라데시, 핀란드, 키르기스스탄에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집회들에는 방글라데시인민혁명, 자력갱생연구소, 핀란드 공산주의자동맹,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열》 인민통일공화국정당, 주체사상연구구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도가 있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칼메리 와르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세계적 차원의 끊임없는 책동에서도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전적인 지지와 편성을 표시한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도에 의하여 선군혁명명도의 시작은 조선혁명을 세계혁명으로까지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 신념을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오셨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세계적 차원의 끊임없는 책동에서도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전적인 지지와 편성을 표시한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세계적 차원의 끊임없는 책동에서도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전적인 지지와 편성을 표시한다.

도이힐란드 단체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사죄, 배상할것을 요구

도이힐란드 프랑켄주체사상 연구구조가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여 강도적방법으로 《한일 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나라를 병탄한지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8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제에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에 강행한 인종차별정책과 자연부린략, 성노예생활강요 등 전대미문의 범죄는 일본국가에

대한 국제법침해했다고 락인하였다.

성명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부산에서 비밀리에 세군기실현을 벌인 사실이 최근에 폭로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은 식민지통치기간이나 후유에나 조선인민에게 해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대한 국제법침해했다고 락인하였다.

성명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부산에서 비밀리에 세군기실현을 벌인 사실이 최근에 폭로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은 식민지통치기간이나 후유에나 조선인민에게 해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단평 미꾸라지의 통 꿈

최근 유엔주재 일본대사로 부임된 니시다가 유엔안보리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그 기치를 드는데 적합한 나라는 일본이 틀림없다.》고 제법 큰소리 쳤다. 그의 말인즉 유엔안보리사회를 개혁하는데서 일본이 주역을 놓고있으며 따라서 자기 나라가 마땅히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미꾸라지가 통이 될 꿈을 꾸고나 있다.

전범국, 정치난쟁이로 비난받는 일본은 아직도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군국주의속성을 품고있다. 이러한 일본이 세계의 안전과 국제평화질서문제를 다루는 책임적인 일을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도덕적책임과 의무를 한사코 리행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저렬하고 교묘한 처사는 아시아인민들의 대일증오와 혐오감을 더해줄뿐이다. 한나더로 말하여 항성이 어지러운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는것을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전범국, 정치난쟁이로 비난받는 일본은 아직도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군국주의속성을 품고있다. 이러한 일본이 세계의 안전과 국제평화질서문제를 다루는 책임적인 일을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난 도덕적책임과 의무를 한사코 리행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저렬하고 교묘한 처사는 아시아인민들의 대일증오와 혐오감을 더해줄뿐이다. 한나더로 말하여 항성이 어지러운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는것을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옹납할수 없는 살육과 폭압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8월 27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서북부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미사일공격을 가함으로써 4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민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내어놓고있다.

8월 28일 가자지구의 북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손 총에 맞아 2명의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아프가니스탄행정체제가 8월 28일과 29일 남부와 동부지역에서 벌인 공격작전으로 6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죽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지 7년째 무역직자가 1억 8600만NZ\$ (뉴질랜드달러)에 달하였다. 8월 30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자 연 교 해

●브라질에서 최근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8월 26일과 27일에만도 전국각지에서 139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산불로 많은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긴급대피하였다.

5000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북부지역의 여러 주들에서 도로들이 폭삭 끊어 파괴되고 많은 도시들이 고립되었으며 농작물들이 못쓰게 되었다.

정부에서 산불을 끄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지 7년째 무역직자가 1억 8600만NZ\$ (뉴질랜드달러)에 달하였다. 8월 30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지 7년째 무역직자가 1억 8600만NZ\$ (뉴질랜드달러)에 달하였다. 8월 30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7-011602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번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승리선과 위훈들의 애로새겨온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인민군 《베르디오프》 제31호가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 과거에 하는 장군님의 영상 사진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는 사진들을 정중히 보였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정도에 애를 새겨온 정을 소개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출판되었다. 《베르디오프》신문 독자들을 비롯하여 로씨야의 근로자들도 이 로작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베르디오프신문사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로작의 요지를 게재한다.

신문은 1면에 《평화와 독립의 정치》라는 제목 밑에 《1960년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과 조선민족의 평화통일위업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은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시였다.》라는 안내문을 달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나 시위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활동초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역사적인 보고서에 조선해방의 유일한 방법에는 무장투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러하여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어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해방 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 정구적혁명력을 건설하는데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조선혁명이 시작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게 한 선군정도로 일관되어왔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사상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첫 시기부터 군사를 찾지않고 놓고 군대에 당의 령도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시면서 선군혁명적 생활력, 강화해주시어 오늘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결과 조선에서는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종국완성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보편적이고 선진성이 있는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또한 《병사의 어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로 조선혁명을 승리해 이끌어나가신 데 대해서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혁명적사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였다.

조선이 일본강점하에 있을 때 수많은 해방운동가들은 다른 나라에 기대를 가지고 청년

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명도를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가실 줄은 의의의 파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준비태세를 알아보고서 전투력강화를 위한 강령적인 과업도 제시하시며 병사들의 생활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하기에 전체 조선인민군 인민들은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할 불타는 열의에 찬양되어왔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조선의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강화발전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조선에서 군대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 조국보위뿐 아니라 경제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을 도맡아 돌고꾸를 맡아예끼고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기둥, 주력군으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출판되었다. 《베르디오프》신문 독자들을 비롯하여 로씨야의 근로자들도 이 로작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베르디오프신문사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로작의 요지를 게재한다.

신문은 1면에 《평화와 독립의 정치》라는 제목 밑에 《1960년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과 조선민족의 평화통일위업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은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시였다.》라는 안내문을 달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사상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첫 시기부터 군사를 찾지않고 놓고 군대에 당의 령도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시면서 선군혁명적 생활력, 강화해주시어 오늘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결과 조선에서는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종국완성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보편적이고 선진성이 있는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사상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첫 시기부터 군사를 찾지않고 놓고 군대에 당의 령도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시면서 선군혁명적 생활력, 강화해주시어 오늘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결과 조선에서는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종국완성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보편적이고 선진성이 있는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출판되었다. 《베르디오프》신문 독자들을 비롯하여 로씨야의 근로자들도 이 로작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베르디오프신문사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로작의 요지를 게재한다.

신문은 1면에 《평화와 독립의 정치》라는 제목 밑에 《1960년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과 조선민족의 평화통일위업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은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시였다.》라는 안내문을 달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사상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첫 시기부터 군사를 찾지않고 놓고 군대에 당의 령도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시면서 선군혁명적 생활력, 강화해주시어 오늘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결과 조선에서는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종국완성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보편적이고 선진성이 있는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사상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첫 시기부터 군사를 찾지않고 놓고 군대에 당의 령도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시면서 선군혁명적 생활력, 강화해주시어 오늘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결과 조선에서는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종국완성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보편적이고 선진성이 있는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합 조

베루와 빠나마가 8월 26일 두 나라사이의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할때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베네수엘라와 메히코는 환경, 에너지를 더 염려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까지 20만㎡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실업률 감소

브라질에서 올해 7월에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 줄어들어 6.9%에 이르렀다. 8월 26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보선중앙통신】

합 조

베루와 빠나마가 8월 26일 두 나라사이의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할때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베네수엘라와 메히코는 환경, 에너지를 더 염려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까지 20만㎡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실업률 감소

브라질에서 올해 7월에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 줄어들어 6.9%에 이르렀다. 8월 26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보선중앙통신】

물물재해결조치

푸니지정부가 먹는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바다물정체장들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그에 따라 가메시지역에 바다물을 정제하여 먹는물 생산하는 3개의 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나라에서는 하루 바다물 정제능력을 현재의 10만 3000㎡로부터 2014년

물물재해결조치

푸니지정부가 먹는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바다물정체장들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그에 따라 가메시지역에 바다물을 정제하여 먹는물 생산하는 3개의 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나라에서는 하루 바다물 정제능력을 현재의 10만 3000㎡로부터 2014년

물물재해결조치

푸니지정부가 먹는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바다물정체장들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그에 따라 가메시지역에 바다물을 정제하여 먹는물 생산하는 3개의 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나라에서는 하루 바다물 정제능력을 현재의 10만 3000㎡로부터 2014년

상전의 고압자세, 하수인의 굴종행위

최근 미국방장관 게이츠가 《국방성개혁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앞으로 미국이 군사비를 삭감할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세발전과 관련하여 합성비와 증강과 개발에 군사비를 중점적으로 할당할것이라고 하였다. 그 무슨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이라는것이다.

최근 미국방장관 게이츠가 《국방성개혁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앞으로 미국이 군사비를 삭감할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세발전과 관련하여 합성비와 증강과 개발에 군사비를 중점적으로 할당할것이라고 하였다. 그 무슨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이라는것이다.

최근 미국방장관 게이츠가 《국방성개혁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앞으로 미국이 군사비를 삭감할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세발전과 관련하여 합성비와 증강과 개발에 군사비를 중점적으로 할당할것이라고 하였다. 그 무슨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이라는것이다.

조건에서 군사비를 줄이면 주일미군이 약화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영향력이 약해지게 된다라는것이다.

이에 대해 게이츠가 단단히 대답한 대답을 주었다.

미국이 군사비를 삭감하는것을 보상할수 있을 정도로 저들이 일본에 더 많은 재정적부담을 요구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일본은 싫든좋든 주일미군 유지비로 미국에 돈을 넘겨주게 될수가 없으며 저들은 오히려 일본에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것이다. 일본내에서 《동맹에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을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언동이었다. 그야말로 하수인에 대한 상전의 고압자세라고 할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게이츠는 일본을 우습게 알고있다.

조건에서 군사비를 줄이면 주일미군이 약화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영향력이 약해지게 된다라는것이다.

이에 대해 게이츠가 단단히 대답한 대답을 주었다.

미국이 군사비를 삭감하는것을 보상할수 있을 정도로 저들이 일본에 더 많은 재정적부담을 요구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일본은 싫든좋든 주일미군 유지비로 미국에 돈을 넘겨주게 될수가 없으며 저들은 오히려 일본에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것이다. 일본내에서 《동맹에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을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언동이었다. 그야말로 하수인에 대한 상전의 고압자세라고 할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게이츠는 일본을 우습게 알고있다.

조건에서 군사비를 줄이면 주일미군이 약화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영향력이 약해지게 된다라는것이다.

이에 대해 게이츠가 단단히 대답한 대답을 주었다.

미국이 군사비를 삭감하는것을 보상할수 있을 정도로 저들이 일본에 더 많은 재정적부담을 요구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일본은 싫든좋든 주일미군 유지비로 미국에 돈을 넘겨주게 될수가 없으며 저들은 오히려 일본에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것이다. 일본내에서 《동맹에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을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언동이었다. 그야말로 하수인에 대한 상전의 고압자세라고 할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게이츠는 일본을 우습게 알고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라. 일본은 이렇게 저렇다 반응이 없이 덤덤했다. 하기는 미국이 요구하는것을 일본이 그에 응하여 하는것은 일본의 처지라는것을 넘두어 볼 때 심본 그럴수 있다.

《자주의교》를 골잡이 외에는 일본이 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의 리기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면이 없고 의지 않고 상전의 비위를 발라 맞추며 비굴하게 하수인으로 놀아나는 교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력대적으로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모든것을 데미 추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라. 일본은 이렇게 저렇다 반응이 없이 덤덤했다. 하기는 미국이 요구하는것을 일본이 그에 응하여 하는것은 일본의 처지라는것을 넘두어 볼 때 심본 그럴수 있다.

《자주의교》를 골잡이 외에는 일본이 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의 리기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면이 없고 의지 않고 상전의 비위를 발라 맞추며 비굴하게 하수인으로 놀아나는 교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력대적으로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모든것을 데미 추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라. 일본은 이렇게 저렇다 반응이 없이 덤덤했다. 하기는 미국이 요구하는것을 일본이 그에 응하여 하는것은 일본의 처지라는것을 넘두어 볼 때 심본 그럴수 있다.

《자주의교》를 골잡이 외에는 일본이 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의 리기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면이 없고 의지 않고 상전의 비위를 발라 맞추며 비굴하게 하수인으로 놀아나는 교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력대적으로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모든것을 데미 추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원형실 326-5428, 당역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제13003호) (취급승인) 제3호